

‘AI부터 클린테크까지’… LG,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가속화

문화·혁신·예술 축제 ‘스파크’
8개 계열사 R&D 신기술 등 공유
60여개 전시 부스, 6개 분야 다뤄
DX페어·슈퍼스타트 데이 등 잇따라

LG그룹의 연구·개발(R&D)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계열사 간 기술을 교류하고 차세대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LG는 3주간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구성원, 외부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문화·혁신·예술 축제 ‘LG 스파크 2024’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LG 테크페어’는 26일부터 이틀간 8개 계열사의 R&D 신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전문가와 난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다.

LG는 총 60여개 전시 부스를 마련해 그룹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바이오(B), 클린테크(C) 분야 이외에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모빌리티, 소재·부품까지 6개 영역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로 집안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AI 허브’ ▲탄소를 전환공정 없이 원재료로 직접 활용하는 친환경 신소재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안전성과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가 2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스파크(SPARK) 행사의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LG SPARK 2024.

/LG

증상 완화 효능을 크게 높인 치료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업을 모색한다.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융복합 R&D 워크숍도 연다. 계열사 연구위원급 전문가들이 참여해 ‘물 없는 친환경 세탁기’ ‘당뇨와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채혈 없는 혈당측정 기술’ 등 R&D 난제를 심층 논의한다.

LG 그룹의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모이는 ‘이노베이션 카운실’ 이외에 연구위원급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A·B·C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미래기술 세미나 세션도 마련했다. 김상배 MIT 교수, 이상엽 KAIST 부총장, 강기석 서울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LG 테크페어 이후에는 ▲계열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DX페어’(29~30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슈퍼스타트 데이’(9월 4~5일) ▲그룹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교류하는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9일~10일) ▲LG 구성원 가족, 산학인재, 마곡 지역주민과 소

상공인이 소통하는 ‘컬처워크’(11~13일)가 열린다.

DX페어에서는 계열사의 32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 성과를 전시하고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임직원 대상으로 생생한 AI ‘챗역사원’을 소개한다.

이진규 LG에너지솔루션 전무, 권도혁 LG생활건강 전무 등 계열사 CDO(최고디지털책임자)는 ‘DX를 활용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특강에 나선다.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에

서는 AI·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등 8개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한다. MS, IBM, 퀄컴, 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발자들이 참여한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은 “LG 스파크를 지속 확대해 계열사간 융복합 연구개발 시너지를 내고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LG사이언스파크만의 차원이 다른 혁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수소연료전지 시장 본격 진출

글로벌 리딩기업 ‘컨비온’ 인수
차세대 청정에너지 등 기술 확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수전해 강화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딩기업인 ‘컨비온’을 약 7200만유로(1065억원)에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컨비온’은 2012년 설립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 및 공급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SOFC와 SOEC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너지의 핵심기술로서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개발기간도 장시간 소요돼 핵심기술 확보시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400억원을 출자,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 전망도 밝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장은 육상 발전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30%씩 성장, 2023년 2.5조 원에서 2030년 1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사용이 본격화되고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

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400억원을 출자,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술뿐만 아니라 소형원자로(SMR)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기술로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세아제강

탄소저감 후관 공동평가

탄소 배출 12% 감소 효과

현대제철이 해상풍력용 탄소저감 후관 개발에 한창이다. 현대제철은 세아제강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탄소저감 후관 및 강관 구조물을 제작, 평가하고 해당 소재의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탄소저감 후관은 탄소량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한 항복강도 355MPa(메가파스칼)급 해상풍력용 후관을, 국내 강관업계 선두주자인 세아제강이 강관으로 가공해 조관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고로재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춰 합격 판정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패스키 인증으로 비번없는 시대 앞장

서비스형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제공
생체·핀번호 인증 등 간편 로그인

SK텔레콤은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인증 가능한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대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인증 및 로그인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표준(W3C, Fido Alliance) 기술 개인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외출 필요 없이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인증방식(생체 인증, 핀 번호 등)을 통해 간편하

게 로그인 가능하다.

구글·애플·MS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패스키 인증을 각사 운영체제(OS)의 기본 인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에 패스키를 도입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직접 개발, 본인확인 서비스 앱인 패스(PASS)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패스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SaaS형태로 준비해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위원 선임

글로벌 경험 바탕, 민간외교 앞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다. 26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신규위원’에 임명됐다.

ABA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활동 과정에서 정상과의 대화 등에 참여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시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부회장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한일경제협회, 한일포럼, 한미재계회의,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등 국내외 대표적인 경제교류단체를 이끌며 경제외교 확대에 힘쓴 아버지인 고조석래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차현정 기자

KT, ‘파트너사 상생’ 납품대금 조기 지급

KT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파트너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KT커머스, KTDS, KT엔지니어링, 브이피 등 그룹사와 함께 총 107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파트너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